

# 해양학자의 환경일기 '서른다섯 번째 기록-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기후변화'

## 이타적 유전자

윤승태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해양학전공 조교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초박빙'일 것이라는 여러 언론사 및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카밀라 해리스 후보보다 86명이나 많은 선거인단(312 vs 226)을 확보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부터 공식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니 세계는 지금 미국발 소식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기후변화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표적인 '반(反) 기후' 정책가로 유명하다. 2017년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했었다. 물론 실제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시기는 그가 퇴임하기 몇 달 전인 2020년이었고 바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14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든 대통령이 집권 후 바로 재가입하면서 협약 차원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이는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에 친(親)화석연료 성향의 인사를 지명했으며, 화석연료 사용도 전면 확대했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는 미국 내 경제 상황, 정치, 사회적 원인 등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었겠지만 여기에 기후변화 영향은 철저하게 무시된 것이었다. 이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해양대기청(NOAA),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주요 기후변화 연구기관 예산도 대폭 삭감했었다. 심지어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반대한 과학자들을 연구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정부가 주관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는 결과 조작을 강제했다는 폭로

까지 나왔었다. 필자도 이 시기에 박사 후 과정 진학을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지원한 기관들에서 받았던 답변 대부분이 연구비가 부족해 새로운 연구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제47대 대통령 트럼프도 대선 공약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내건 만큼, 취임 후 1년 이내에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해양과 대기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NOAA를 해체하고 많은 기능을 없애 민영화하거나 주산하기관으로 바꿀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NOAA의 해체는 기후변화 연구자로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혜택 중단,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화석연료와 원전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후'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지구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를 넘어 '끓는 지구(global boiling)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향후 5년 내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C 이상 높아질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한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을 2100년까지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이었는데 약 10년 만에 현실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트럼프 정부의 '반기후' 행보는 과거 트럼프 정부의 '반기후' 정책들보다도 기후변화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자명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후변화 연구계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하나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내년 미국 정부에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비를 삭감함에 따라 당장 미국 연구자들은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해외 협력의 문을 두드릴 확률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계적인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연구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여지러운 정치 상황이지만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수습될 수 있길 바라며, 내년 혹은 내후년에도 정부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 기관과의 협력 관련 연구 예산을 확충하고 국내외 젊은 기후변화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해외 방문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조명가계'

### 전일광장

이기연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  
교육학박사



최근 강풀 작가의 웹툰 '조명가계'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드라마가 OTT로 공개되었다. 드라마 속 조명가계는 이승과 저승이 연결된 곳으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허락된 특별한 공간이다. 항상 어두운 골목 끝에 유일하게 빛을 밝히는 곳으로, 조명가계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 각자의 전구가 있고, 스스로 자신의 전구를 찾은 이들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탄핵정국 속 혼란스러운

날을 보내던 국민들은 제주항공 참사로 분노 속 참담한 연말을 보냈다. 희생자 대부분이 광주와 전남 지역민이었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비탄에 빠졌다. 새해에 맞춰 서로에게 건네던 덕담이 무색해졌고, 밝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분위기보다 일상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졌다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고 2025년을 암울한 해로 만들 수는 없다. 스포츠와 문학 분야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광주는 KIA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우승, 광주FC의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 등 시민들을 기쁘게 하는 성과들이 있었다. KIA타이거즈와 광주FC는 이범호, 이정호 감독과 올해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 두 감독에게는 광주시민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후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수상이자 문학과 정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정점에 '오월광주'가 자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다. 해가 바뀌었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의 여운은 지속되고 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던 자기계발서를 밀어내고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대신하고 있다. 광주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한강 열풍이 불고 있고, 독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강 작가는 최근까지 독립서점 운영자였고, 동네의 작은 서점이 갖는 사회적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베스트셀러나 대중적인 책 위주의 대형 서점과 다르게 독

립서점은 판매량과 상관없이 철학·예술·고전문학, 그림책 등 분야별 다양한 책과 소규모 출판사의 책을 선택하여 진열한다. 독자들은 매체들이 홍보하는 평판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좋은 책을 발견하고,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재구성할 수 있다. 독립서점은 책을 구입하는 단순한 활동뿐만 아니라 카페, 갤러리 등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마을 행사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동네서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에는 19곳의 독립서점이 운영 중이지만 동구와 남구에 몰려있어 동네에서 서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대신 광주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함께 참여하고 활동이 가능한 '행복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광주광역시 지역 내 접근성이 좋은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등 55곳을 마을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하였다. 행복학습센터는 독서뿐만 아니라 공예, 환경·

역사 등 인문학, 문화예술, 유튜브·자격증 등 직업관련 강좌 등을 통해 배움과 나눔,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 비극적 참사를 목격한 광주시민들에게는 어느 해보다 소속감과 안정감 등을 토대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공식적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은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시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행복학습센터, 독립서점 등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동네 안의 여러 공간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5년, 우리 곁에는 시민들을 서로 연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치유와 소통의 공간이 절실하다. 각자의 꿈을 응원해주고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따뜻하고 밝은 '조명가계'가 가득한 광주가 되길 기대해 본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